

# 성 주 풀 이

口誦 權 豪 容  
採錄 崔 吉 城

〈陸士專任講師〉

## 범례

1. ( )는 어의(語義) 및 어원(語原)을 풀이한 경우의 부호.
2. [ ]는 바로잡기의 부호

## 一. 청 배(請 拜)

청유리라 황유리라 화장창낙 세겨운데 무진각시가 대활례로 놀으소사 정재월산 적제 황제(赤帝黃帝) 정재월산이 정재황제 가진황제 대활례로 놀으소사 정재적재 적재정재 사해용왕(四海龍王) 유리어든 팔만황제가 대활례로 놀으소사 칩다굴러 삼십삼천(三十三天) 천신황제(天神黃帝) 내리굴러 이십팔수(二十八宿) 지신황제(地神黃帝)가 대활례로 놀으소사 동두칠성 남두칠성 서두북두는 일곱칠성 노인성(老人星)에 성신황제가 대활례로 놀으소사 동서남북방 오방장군 중앙으로 결륜황제 대활례로 놀으소사 이산으로 내린 황제 저산으로 살룡황제 대활례로 놀으소사 산신황제 토신황제 각사머리 부군황제 안간 도당 국사황제 대활례로 놀으소사 소어들어 소받았다 두신황제 당어들어 당받았다. 주신황제 대활례로 놀으소사 물이말라 건답이요 물이충충 수답이라 드령난 논이로다 살에 차고 장찬밭에 오품백곡 마련하여 씨던지던 식신황제 대활례로 놀으소사 소산황제 산용황제가 대활례로 놀으소사 소산황제 산용황제가 대활례로 놀으소사 토산황제 후토황제가 대활례로 놀으소서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때에 천년묵은 돌잔나비가 심청이 그리기를 용궁에를 출입다가 심진철을 도적하여 대로천궁 장난키로 옥황이 진노하사 관음보살이 정기하야 오봉산에다 구봉부 한 장으로 기질러 두었더니 오백년이 지난후에 삼장법사(三藏法師) 제자되어 사생저팔계(一豬八戒) 선왕자[손행자]를 거나리고 서천으로 향할적에 태산이 주산되고 형산이 안산이라 동해송산은 청룡이요 아미산(峨眉山)이 백호로다 갈치산 넘어가서 풀치산을 돌아드니 요양산이 본이던가 동미는 장낙관이요 서지는 미안궁을 도연명이 노던곳이라 무릉도원이 본이던가 적벽강에 배를 띄어타고 오류천강 돌아드니 엄자룡이 노던 곳이라 부춘산증이 본이신가 백로(白露)는 횡강(橫江)하고 수강(水江)은 접천(接天)이라 만고문장 소동파가 노던곳이라 애미산이 본이신가 성삼문(成三問)이 글을 지어 비문등소 하였구나 백이숙제(伯夷叔齊) 경계하여 수양산(首陽山)이 본이신가 순(舜) 임금의 남순수도허사 야창군을 봉하실 때 달이 돌아 중천하니 단이월봉이 본이신가 진시황(秦始皇)의 아방궁(阿房宮) 벌목대에 백양대 지으실제 옥야천리(沃

野千里) 고래실을 수구(水口)삼아 둘러 있고 방사서시(方士徐市) 불러들여 장생불사(長生不死) 허라하고 동남동녀 오백인을 불러다가 삼신산(三神山) 불노초(不老草) 불사약(不死藥)을 구허라 허고 일렀더니 주역산이 본이신가 왕년금년(往年今年) 양년간(兩年間) 월일시에 지장보살의 거동을 보소.

## 二. 임목(林木)의 생성(生成)

이건(移建)이내 이사(移徙)동토 금일안택(今日安宅) 설경시주재가(說經施主齋家)에 성주잡가(成造雜歌)를 허라하고 남성주 근본은 어디신가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이 본이신가 여성주 근본은 제주 한라산이 본이신가

제비원에 솔씨를 받아 대(大)솔씨 닳말에 중(中)솔씨 닳말 소(小)솔씨도 닳말 삼오십오(三五十五) 열다말을 받아주고 태백산으로 올려달아 사해세계(四海世界) 다돌아보고 내려달아 전라도로 지리산거쳐 지리산은 백마강이 둘러있고 소백산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러있고 충청도 계룡산은 공주금강이 둘러 있고 과천으로 관악산은 염불암 염주대 치마상자(裳字) 둘러있고 경기도 삼각산은 한강보강이 둘러있고 평안도로 묘향산은 대동강이 둘러있고 행정도(咸鏡道)로 백두산 장백산은 용흥강(永興江) 두만강이 둘러있고 강원도 금강산은 원근산천(遠近山川)에 소양강이 둘러있고 동녘으로 찾아 들제 양주(楊洲)너머 소요산(逍遙山) 포천(抱川)으로 왕방산은 국사봉이 솟아있고 해룡산 분경산 옥금수에 거침봉이 솟아있고 양주너머 천마산성너머 바라보니 반갑도다 저산이요 양근땅에 용문산은 운무중에 솟아있네 동녘으로 찾아들어 호양김성 썩들어가서 울진영월(蔚珍寧越) 평창(平昌)으로 찾아들어 그 솔씨를 뿌려두고 그 나머지 솔씨는 팔도명산 찾아들어 뿌려두고 그 나머지 솔씨는 내외경산(內外京山) 영문(營門)잔에까지 뿌렸더니 그솔씨가 아귀가 띄어 썩이 난다. 태양산(太陽山) 신령(神靈)이 수령을 들고 태음산(太陰山) 신령이 이슬을 주어 그솔씨 아귀가 띄어 썩이 난다. 밑으로 뿌리가 되어 위로 바늘솔이 되었구나 용신(龍神)이 비를 주어 낮이며는 별발받고 밤이며는 찬 이슬받아 이삼년이 되더니 방석솔이 되었구나 오륙년이 지나더니 애송목이 되었구나 이삼십년이 지나더니 도리연목(椽木) 되었구나 사오십년이 지나더니 소부동이 되었구나 칠팔십년이 지나더니 대부동이 되었구나 오백년이 지나더니 연포지목 되었구나 청장목(靑長木) 황장목(黃長木) 되었구나

왕장목이 된 연후에 이집이록[이록]을 허자하고 호조(戶曹)말에 입지(立旨)를 내고 형조(刑曹)말에 입지(立地)를 내고 강원감사(江原監查)에 물물근취[공채(公債) 즉 수세(水稅)를 말함]내고 호양관에다 부쳐놓고 나무 비는 목상(木商)들이 공전역가(公錢役價) 환전(換錢) 대고 연장망대는 옷집치고 호양김성 썩들어가서 행장갓[고어(古語)밭] 찾아드니 운무는 자욱한데 심심산곡(深深山谷) 들어가며 좌우산천 살펴보니 초림동록(草林同綠) 입분석(立分石)이요 입곡분야(分野)에 태반상이라 반공산천(半空山川)이 푸fut한데 천봉만학(千峯萬壑)은 깊고깊어 절벽상(絶壁上)에 폭포수는 표조자용 절벽한데 선경(仙境)에도 제일이라 영롱한 오색채운은 송림간에 새잡하고 육니청산 깊은골에 낙낙장송은 늘어지고 오동벽도(梧桐碧桃)가 울울창창(鬱鬱蒼蒼)하고 두견접동(杜鵑一) 슬피울고 앵무공작이 넘나든다. 강남갔던 제비들은 옛집을 다시 찾아들어 돌아왔노라 천신할제 울림울조 물새들은 쌍거쌍래(雙去雙來) 날아들고 황새백로(一白鷺)는 운수간에 희롱하고 간수(澗水)는 잔잔한에 점점이 들어가니 황금같은 피꼬리는 황금잡옷 졸라입고 양류간

(楊柳間)으로 돌아든다. 백화는 피어 만발한데 미력은 수림간(樹林間)에 왕래하고 백설 같은 흰나비는 소복단장(素服丹粧) 펼쳐입고 화림중(花林中)으로 날아든다. 무릉천 지가 예아니냐 청학백학(靑鶴白鶴)은 천장을 다루어 두리등실 춤만춘다 별유천지(別有天地) 비인간이 예아니냐

산천경개(山川景概) 절승한데 산신고사(山神告祀) 드리로다 어백미(御白米) 서말서되(三斗三升) 고양미(供養米)를 지어놓고 산신고사 축원(祝願) 비는말이 천신지신(天神地神) 아읍소소 태산신령 황친후토 산신은 감찰흠향(鑑察歆饗) 하읍소서 소지삼장(燒紙三長) 드렸더니 여러 역꾼들이 천근도끼(千近一)를 갈어메고 대산에 올라 대부동비고 중수산(中小山)에 올라 중소목비고 외산에올라 외를찌고 원근산천에 칩을 끊어 황토산에 흙을 파고 석가산에 들을때려 왕장목은 양끝팔라 화라지치고 꺼풀을 베껴 군두치더니 상대증대하대로 뗏목을 메어 언덕비탈에 년짓년짓 끌어넘겨 평산육지(平山陸地)에 끌어내어다 소양강변(昭陽江邊) 부러놓고 석당장마 시위받아 유수가 청일후에 배중떼목은 이십사강에 다들여 실어놓고

이물에 이사공아 저물에 저사공과 아래윗강 사공들과 경팔경 사공들과 열두동사 젓꾼들이 뱃고사를 지내려하고 독술을 빚더니 섬떡을 친다. 원소 잡아 분육(分肉)을 하고 우두제두(牛頭猪頭)에 칼꽂아놓고 주육설과(주육일(酒肉一)) 한 연후에 청황적백흑(靑黃赤白黑) 오색기(五色旗) 동서남북에 그려꽂고 성주(成造)몸대 한가운데 꽂아놓고 뱃고사축원 비는말이 사해용신이 아읍소사 만학천봉에 낚을비어 대해중에 뿔지라도 뉘도탈 보지말게 하읍소서 수중액난(水中厄難)은 저치시고 왜풍광풍(倭風狂風) 모진악풍 시러지고 어진순풍만 불리소서 물아래 서낭 긴대서낭 돛대서낭 열서낭 뜯서낭 제치소서 수중객귀(水中客鬼)는 함포고복(含哺鼓腹)하고 조밥 이밥 요반백반(要飯白飯) 지어 오부심하고 하수천지 인민들이 집을짓고 살려고서 만학천봉에 낚을비어 대해중에다 뿔지라도 뉘도탈도 보지말소사 뱃고사축원을 마치더니 맑은바람에 돛을달고 노질을 하더니 키질을 한다. 만경창파(萬頃蒼波) 대해중에 띄어놓고 어기야차 둥둥 배떠나간다.

### 三. 재목(材木)의 운송(運送)

명기받아 집선콩에 산은칩칩 천봉이요 수는잔잔 벽계수라 낮이머는 굽에다놓고 밤이머는 섶에다 매고 양기받아 집터놓고 산진거복은 돌진가재 대접같은 금붕어는 시를찾아 물을켜고 양구양천(陽口陽川) 내려놓아 춘낭천(春郎川)을 흘러놓아 횡성홍천(橫城洪川) 영평개평(陽平加平) 양근지평(陽根砥平) 여주이천(驪州利川) 돌아와서 광주분원(光州分院)에 수세(水稅)를 물어 가리여울 물레여울 바댕이지나 광주바람드리지나 망월이 들새미지나 떡수평귀(平丘) 두미월개를 들어서서 광나무 송파(松坡) 새이강 지나 두모개(豆毛浦) 한강보강을지나 서빙고(西氷庫) 동재기지나 용산삼개(龍山麻布) 어귀좁대어 차부(車夫)들을 불러내어 오색잡소 모여들 때 우걱빨이며 작박빨 노구거리며 새옹거리 얼룩이며 사죽발이 저뚜데기며 고리눈이 밀바리 씨레발이 화때거리 천상거리 별백이 비나백이 천지각(天地角) 천근대우(千斤大牛)에 멩에를미고 수양산 물푸레 채찍매아 이라땅땅 때려 억대소로다 결을 미어 한성부(漢城府) 너른뜰로 들어 몰아 모래턱지나 새남터지나 도조굴지나 칠폐팔패 배다리 건너 칠폐팔패 이동리라 남대문안 썩들어서서 칠찬창 수각교 수각다리지나 회동 낙동 장동 낙동을지나 대소동동 중소문안 전현을지나 홍살문을지나 구리재네거리지를지나 적은광충교 큰광충교를 건너와서 벼전조강을 지나와 육조앞을

지나와 북악산하에 다부러쌓고 이장목은 대궐이룩할 장목인데 그나마지장목 골라실고 동대문박 썩나서서 원시골로 내려올제 대서문안 얼른지나 쌍살문이로 내려올제 대서문안 얼른지나 쌍살문이로 내려달아 다락원을 얼른지나 장수원을 지나서니 의정부로 지나서서 아랫서낭 윗서낭을 지나서서 축설령을 넘겨달아 소홀면 송우리(宋隅里)로 내리달아 이문전에 찾아들어 이문전에 들어쌓고 이장목은 대궐지을 장목인데 그나마지 장목은 이집 터전을 정하려하오.

#### 四. 양택(陽宅) 풍수(風水)

일등풍수를 찾아다니니 한터잡던 무학(無學)이는 일일진(日日盡)에 비상천(飛上天)하고 송도송악산(松都松岳山) 잡던 도선(道洗)이는 세상을 마다하고 비상천하고 승진의 박상이는 답산(踏山)갓소 성거사같은 지관(地官)을 불러다가 이집터전을 정하여 주소서 윤도편척(輪圖片尺)을 손에다들고 자좌오향(子坐午向)의 쇠를떠니 이산 좋고 주산 좋고 내령 좋고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 남주작(南朱雀) 북현무(北玄武)라 구진등사 별려놓고 득수득과 더욱좋다 한강이 수구를삼아 둘러있고 삼각산이 똑떨어져서 어청주춤 흘러내린 명당(明堂)이라 첫째명당은 대궐이되고 둘째명당은 각궁각사(各宮各寺) 되었구나 셋째명당은 원시골로 내려달아 태상봉이 솟아있으니 귀동옥자(貴童玉字) 날터로다 수양산이 비쳤으니 수명장수(壽命長壽) 허리로다 이구산(泥丘山)이 비쳤으니 성현군자(聖賢君子)도 날터로다 대장봉(大將峰)이 비쳤으니 한소년 일위 대도독(大都督) 도원수(都元帥)가 나리로다 문필봉(文筆峰)이 었봤으니 문장재(文章才)가 나리로다 부귀봉(富貴峰) 노적봉(露積峰)이 비쳤으니 부자장자(富者長者)가 날것이요 봉래산(蓬萊山)이 비쳤으니 약수삼천리(藥水三千里)들렸으니 천년유택하고 만년복과 하리로다 지관 손님 후이대접해 전송(餞送)허소

이집재목 치목(治木)을 허라허고 팔도명철(八道名鐵)을 뽑아들여 이원단천(利原端川) 함흥쇠 강계성천(江界成川) 제조쇠(製造鐵) 황주봉산(黃州鳳山) 자를쇠 배미영천 속천쇠 경기별철 강화쇠(江華鐵) 동래부산(東來釜山) 상주쇠(尙州鐵)라 여러대장 불러다가 동서남북에 풀무를 놓고 각색연장 치어내제 대톱중톱 소톱을 치고 대자귀 중자귀 소자귀치고 도끼까꾸 대소대패 외골미리면 쌍골미리 대화편탕 쌍사치고 장도리 마치바고 송곳치고 대끌중끌 소끌을치고 고리사슬 들저귀 종못 평고대못까지 가쳐 놓았구나 선생편수는 자질허고 제자편수는 먹줄을 맞치어 굵은나무는 병렬하고 동근나무는 모를재어 속빈나무는 화통을치고 잣은나무는 굽다듬고 굵은나무는 잣다듬고 가는나무(細木)는 보춤하고 이집재목 치목을 다한후에

여러역꾼(役軍)들을 불러다가 단밤 쓴술을 많이먹이며 공전역가를 후이주며 이집터전 닦아주소 굵은들은 빼어가며 잔들은 묻어가며 좌우를 파서 보토(補土)하고 앞뒤를 편편하게 닦아주소 여러일꾼들이 듣거라하니 동편(東便) 짝을 다져라 동편 짝은 동해애미산이 비쳐서 청용송(靑龍松)이 솟아있고 청학(靑鶴) 한쌍이 알을 품고 앉았으니 이터전에 집을지면 대대손손(代代孫孫)이 내려가며 남녀자손(男女子孫)이 무수번성(無數繁盛) 헐터이니 애미산명기 흐를세라 청용술 떨어질세라 청학한쌍이 놀렐세라 가만가만히 다져라 남편(南便) 짝을 다져라 남해(南海) 낙하산 명기 비쳐서 주작송(朱雀松)이 솟아있고 홍학(紅鶴) 한쌍이 알을 품고 앉았으니 이터전에 집을지면 대대손손이 내려가며 고관대작(高官大爵)이 누릴테니 낙하산명기 흐를세라 주작송이 떨어질세라 홍학한쌍 놀랄세라 가만

가만해 다져라 서편(西便)쪽을 다져라 새해금수산 명기 비쳐서 백금송이 솟아있고 백학(白鶴) 한쌍이 알을 품고 앉았으니 이터전에 집을지면 대대손손이 내려가며 부귀공명(富貴功名) 누릴터이니 금수산명기 흐를세라 백학송 떨어질세라 백학한쌍 놀렐세라 가만가만히 다져라 북편(北便)쪽을 다져라 북편학은 북해오소산명기 비쳐서 현무봉(玄武峰)이 솟아있고 흑학(黑鶴) 한쌍 알을 품고 앉았으니 이터전에 집을지면 대대손손이 내려가면 무고태평(無故太平) 할터이니 오소산명기 흐를세라 현무송이 떨어질세라 흑학한쌍이 놀랄세라 가만가만히 다져라 한가운데를 다져라 팔동명산명기가 회취하여 모디고모더[모이고 모여] 오복송(五福松)이 비쳐있고 임진업이 엮더있고 금구령이 서렸으니 이터전에 집을지면 대대손손이 내려가며 시시개문(時時開門) 만복래(萬福來)요 일일소지(日日掃地) 황금출(黃金出)이라 명사정기 흐를세라 임진업을 다칠세라 가만가만히 다져라 천년 유택하고 만년복과 하리로다.

##### 五. 건축(建築) 과정(科程)

지경소리 허는말이 소금을 넣고 염(鹽) 지경을 다아볼까 솟을넣고 솟지경을 다아보세 모래지경 백토지경 단후에 관상감(觀象監)에 택일(擇日)하여 천덕월덕(天德月德) 성숙황도 갖추골라 대주생기일(大主生氣日) 슬하자손(膝下子孫)에 천의귀혼 가려다가 입주상량(立柱上樑)허라면 천명(天命)을 누리더니 봉학(鳳鶴)이 올라뒀다. 봉학을 놀러서 주추를늘째 네모번 듯 평주추요 둥글원자(一圓字)호박주추 육모주추며 팔모주추는 소주추라 데소주추를 이십(二十四方) 벌려놓고 양택문서(陽宅文書) 펼쳐들고 안방으로 들어서서 부모자손의 운(運)을보니 부모님전 왕택이요 아들자손은 양택이라 왕택양택금택복택으로 효자충신 충효운(忠孝運)에 내당(內堂)원채 세워놓고 아랫간으로 내려서서 동자간 운을보니 시부모님께서는 호택이요 며누리자손에 복택이라 효택복택으로 효부열녀(孝婦烈女) 도덕운(道德運)에 쟁미곡간 시냇간동자간 부엌채를 세워놓고 뜰아래로 내려서서 뒤후면 바라보니 선심공덕 취산용에 삼태형국(三台形局) 뚜렷하고 좌편을 바라보니 부귀봉 노적봉 다기봉(多奇峰)허고 우편을 바라보니 동녹봉이 버쳐있고 문필봉이 의구(依舊)하다. 앞남산을 건너다보니 집수봉에 거물계정자(一丁字) 분명하다 앞뜰에는 도라지 심고 뒷뜰에는 더덕을 심어 오복팔복이 모여들째 노인의 약대복(藥大福)은 갱소년(更少年) 일취월장(日就月將) 자라들고 대주의 무량복은 석산의 돌같이 굴러들고 계주의 삼태복은 명산대천의 약수같이 흘러들고 만복록(萬福綠)이 모여들째 오느복은 맞아들이고 가는복은 잡을집자(一執字)로 붙들어 들이고 남산에 널린복과 새해에 널린복은 거물계정자정(丁)로 걷어들여 부귀공명 당전가여 천추만대(千秋萬代) 유전가를 억만세 누리소서 장구(長久)토록 입주상량 허야놓고

가내청청 인구흥성운(人口興盛運)에 중문간 세워놓고 영화공명(榮華公明) 대상운에 대문간(大門間) 세워놓고 계견육축(鷄犬六畜) 번성운에 마구간(馬廐間) 지어놓고 부귀공명 만당운(滿堂運)에 곡간창고(穀間倉庫)를 동서남북에 지어놓고 예행예절(禮行禮節) 숙덕운(淑德運)에 후원연당(後苑蓮堂) 세워놓고 문일지십(聞一知十) 통달운(通達運)에 학당서당(學堂書堂) 산정초당(山亭草堂) 지어놓고 행랑익낭으니 사랑몸채로다 중문대문에 고주대문 안팔줄행랑이며 판사랑이라 내측외측(內側外側) 들여놓고 기둥을 세더니 들보를엮어 들보를엮더니 서까래걸어 서까래를 걸더니 평고대(平高臺)박아 평고대박더니 연합(椽檻)을 박아 연합을박더니 산자를 엮어 산자를 엮더니 진사를 올려 진사를 올리더

니 개와를 올리더니 먼회궁에다 백토를 물려 상중하채를 동성에다 세워놓고 안방월방(內房越房) 마루대청 골방책방 협실을 짓고 중방 안방은 문골을 들여 증깃기가시새 외를 얹어 외를 엮더니 합벽을 친다. 홀벽합벽 마치더니 새벽을 올려 석수(石手)쟁이는 하방을 짚고 운동쟁이는 방구들 들여놓고 미장이는 벽을 친다.

문치장 허리로다 두겹단이며 국화새김 완자(卍字)단이며 가로단이 세단이라 영창들창벼락단이 외쪽단이며 쌍바라지 지계문이며 장지문이라 걸쇠대못이면 고리사슬 들저귀까지 달아놓고 장판치장을 하여보세 안성(安城) 수지로 초되배하고 영남지(嶺南紙)로도 배하고 청룡화로 띠를띠어 홍지금지(紅紙金紙)로 깃물려 황요지로다 굵도리고 낙복지로도 상배하고 각장장판(角壯壯版)에 소란반자(小欄一)를 들여놓고.

## 六. 서화(書畫)와 입춘서(立春書)

만고시장(灣賈詩長) 이태백(李太白)의 글씨는 동편작 부벽상(付壁上)에 붙여놓고 이적선(李謫仙) 소동파(蘇東坡) 두목지(杜牧之) 글씨는 남편작 부벽상에 붙여놓고 육관대사(六觀大師) 성진(性眞) 이는 판선녀(八仙女) 데리고 합장배례(合掌拜禮) 하던 형상 그려다가 서편작 부벽상에 붙였놓고 선팔십 후팔이며 궁곤(窮困)하던 강태공(姜太公)은 늘 샷샷 숙여쓰고 위수(渭水)강에 끈은 낚시 들여놓고 주문왕(周文王) 기다리던 형상 그려다가 북편작 부벽상 그려놓고 한종실 유현덕은 관공장비 거느리고 적토마 빗겨타고 남병산 초당으로 찾아들어 범같은 제갈량(諸葛亮) 데리고 삼고초려(三顧草廬) 하던 형상 그려다가 벽장문에 붙여놓고 상산사호(商山四皓) 네노인이 석가산에 밭을갈고 불로초 불사약을 여기저기 심어놓고 흑기백기(黑旗白旗)를 논아쥐고 동자한쌍 저를 불리며 학두루미로 춤을 취며 바둑두던 형상 그려다가 머리말에 걸어놓고 계견사오 그려다가 머리말에 붙여놓고 울지경덕 금진속보는 그려다가 마원문에다 방비하고

입춘서(立春書)를 붙여보세 세재정미(歲在丁未)는 만사형통(萬事亨通)이라 써서 천상양간(天上樣間)에 붙여놓고 부모(父母)는 천년수(千年壽) 자식(子息)은 만세(萬歲)영이라 아동(兒童)이 쟁진석(爭進席)하니 장로이화간(將老梨花看)이라 복축하운흥(福逐夏雲興)이요 재종춘설소(災從春雪消)요 재앙추엽상전락(災殃秋葉霜前落)이요 부귀춘광하우후홍(富貴春光夏雨後紅)이라 자효쌍친락(子孝雙親樂)이라 가화인화만사성(家和人和萬事成)이라 내당(內堂) 전후좌우에 붙여놓고 이기승정효요 원상복이 환해라 원득삼산불노초(願得三山不老草) 배헌고당백팔친(拜獻高堂白髮親)이라 써서 방문상(房門上)에 붙여놓고 건양다경(建陽多慶)은 사사경이라 입춘대길(立春大吉)은 중중길(重重吉)이라 써서 대청기둥에 붙여놓고 천증세월(天增歲月)은 인증수(人增壽)요 춘만건곤(春滿乾坤) 복만가(福萬家)라 응천상지(應川上之) 삼광(三光)이요 비인간지오복(非人間之五福)이라 써서 마루간 전후좌우에 붙여놓고 요지일월(堯之日月)이요 순지건지(舜之乾之)이라 써서 월방벽상(越房壁上)에 붙여놓고 기옥복이요 화삼축이라 써서 퇴기둥에 붙여 놓고 반출고문 행백옥이요 채전섬수 송청새라 부엌대문에다 붙여놓고 인인생생(人人生生)이요 귀귀멸멸(鬼鬼滅滅)이라 써서 사랑문에다 붙여 놓고 근수누대는 선득골이요 향양화목은 이위춘이라 화웨이사는 춘사해요 월중누각은 야엽호라 써서 다락벽상에 붙여놓고 용지불갈이요 취지물갈이라 써서 광대문에다 붙여놓고 우장일경(牛將一耕)은 백묘전(白描田) 마용일행(勇一行) 삼천리(三千里)라 우여는 남산호(南山虎)요 마마사 북해용(北海龍) 내빈삼천이요 추순무구십이라 써서 마구기둥에 붙여놓고 시시개문(時時開門) 만복래(萬福來)

요 일일소지(日日掃地)황금출(黃金出)이라 써서 중문간에 붙여놓고 봉무용상에 비왕태래라 거북 구자(一龜字) 용용자(一龍字)는 황금대자(黃金大字)로 크게 써서 대문상에 붙여 놓고 춘하추동(春夏秋冬) 사시복(사시福)이요 호남동서남북재(戶納東西南北財)라 써서 행랑기둥에 붙여놓고 단표누항(簞瓢陋巷)의 안씨낙이요 천풍천고 백이빈이라 화개천지 운명기요 뇌동강산 적막심이라 전국인간은 신세월(新歲月)이요 무궁화밭 자손이라 적속이 약산불노하고 독자유환이요 관금무진수라 화기자생 군자택이여 춘광이선도 기린가와 써서 행랑기둥에 붙여놓고 만물정관 개자득하니 사시가흥 여인동이라 소소구성에 봉황내회라 써서 행랑 전후좌우 벽상에 붙여 놓고 식록영창 금옥만당이라 써서 창문위에 붙여놓고 부귀공명 당전가요 천추만대 유전가라 써서 창고문에 붙여놓고

전후 좌우장단 너른뜰에 각색 화초치장 허량이로다 금사오죽 모란화 동초엽초 반초엽초 염초지초 봉학화 잎사귀너른 파초로다 참대는 뜰에심고 소상반죽은 뜰아래심고 애송반송 지자송 심어놓고 인간치칠십 노인화 이팔청춘 최축화 장원급제 어사화(御史花) 선달머리에 의송화 설법도생 불두화 구호만민 제석꽃 영산홍(映山紅) 두견화 진달래 석중명화 철쭉꽃 명사십리 해당화(海棠花) 상증하단에 칭칭이 심어놓고 해열치통지재(解熱治通之材)는 자초지위활혈치담지재(活血治痰之材)는 이꽃홍화 길경백도라지 사람더덕 백상육이며 홍상육 백변두며 흑변구 마산약주 동화당명황 양귀비 대란토란 향부자 화추후추 생강양강 백계자 의인울무는 여기저기 심어놓고 천호동이며 지오동 벽오동 송백(松柏) 수양버들 백발환흑 하소우연 연익수장 구귀자나무는 우물위에 심어 놓고 황기방풍 남승택사 천근미나리 상갓은 우물앞에 심어 놓고 청국적국(靑菊赤菊) 흑국백국(黑菊白菊)이며 황국감국(黃菊甘菊) 오색국화는 전후좌우 장단밑에 들러심고 공자왕손의 방소화 향변자기 자화로다 계계승승 다리화 이환만지 불개문하니 향문십리 행화(杏花)로다 월계화며 쌍계화 초계화 칠십제자 강튼하니 신군중 이화로다 부귀열손의 목단화하엽낙은 일색재하니 여중귀물 애경화 한당불침 연화꽃 내해로 백년화 자손이 창성 동자화 자치나무 유자나무 석류(石榴)나무 연풍사향 석류화 오색이영롱 수유화 풍진불범순선화 백합 취분취대 나팔꽃 일출향발 해바라기 남초화 담배꽃 문덕불침 축문초 소호양 지화장꽃 종이꽃 필화붓꽃은 내문전에 심어놓고 선인목이며 선인장 보기좋은 함박화 탐심하운 해바라기 발한지재(發汗之材)는 차죽이소엽 두풍소재는 장포로다 단귀천궁 생지황 백작약 적작약 오색화개 만정 한데 만물화초 널린화계 가지가지 명화중에 장미화가 곱다더니 집고보니 가시로다 천도화 홍도화 벽도화 앵두나무 이수도지재 어름떡통 보신경지재 오미자는 창문앞에 심어놓고 방초부용 군자초만당추소 흥련화 별당 앞에 심어 심어 놓고 우리나라 금성화 부귀가문에 등선화며 풍류가무(風流歌舞)에 기생화(妓生化) 채송화 할련박하 지혈초부추싸조 맨드라미 사발꽃이며 접시꽃 색비름 대접과 가새과 노래기과 여주파리 일년감 당박이요호박 당고추 당팍기는 장독대에 들러심고 불꽃 석달열흘의 백일홍 고흔손에 염색하여 물들이는 방소화 심어 놓고 사왕명산 생지초 오항명산의 황세초 석반작시 때를쫓아 피는 분꽃 섬섬옥수 고은손에 물들이던 당봉송아며 백봉송아 쪽도리 풀이며 쪽풀은 부엌문 앞에 심어 놓고 사해용왕의 갱생초 오항명산의 생지초 인삼 산삼 현삼 만삼 동자삼 불노초는 별모양에 심어놓고 보리주 염주 모감주나무 패화나무 호양목 안희소채지조 아가워 잔사나무 호두나무 가래나무 오배자나무 북나무 아사리 꽃 동백나무 벗나무 다래나무 머루덩굴 산정초당앞에 심어놓고 문배 참배 합수리 청수리며 황수리 무귀배나무 감나무 뽕나무 능금나무 사과나무 불망기본 밤나무 울목나무 상자목 행자목이며 탕자목 노가주 향나무 들쭉나무 취병을 틀어놓았다.

양지에 방아를걸고 음지에 우물을 파고 앞뜰에 겨우를 놓고 뒤뜰에 청삼사리 알잘 낡는 도가머리며 울음잘우는 청수피 맵씨좋은 당닭은 쌍으로 놓고 개를 놓으면 호박개 되고 궤[고양이]를 놓으면 맹호(猛虎)가 된다 소를 세면 억대가 되고 말을 세면 용풍(勇風)이 되고 이집수장 다한후에 이집진 도편수가 주인지 눈썰미도 있거니와 수명장수로 마루를 놓고 용화공명으로 대문을 내고 일만복록으로 난자팔자 입구자로다 집을 지어 내외분합에 물림되 골꼭도리 선자추녀로 회동그렇게 집을 지오 네귀에다 풍경을 달아 풍경소리에 영화가 나고 영화 끝에 경사가 난다.

## 七. 성조(成造) 고사(告祀)

성주고사를 허라하고 독술을 빚더니 섬떡을 친다. 거성(高城) 대구 원산(元山) 북어 바디산덕에 사지감고 산중과실과 해중어물 양주(楊洲)밤에 남양(南陽)건시 보은(報恩)대추 황주봉산(黃州鳳山) 참배로다 맑은 청주며 호린탁주로다 삼색과실(三色果實)을 다고여놓고 명주미영 베를랑은 필로걸고 명쌀을랑 섬쌀놓고 명전을랑 쾌로놓고 이집진 도편수가 의관정대하고 꿩어앉아 성주고사 축원 비는 말이 이집짓고 드는임자 부자장자 거부일부 세계갑부 되옵소서 이집에 아들손자이 나거들랑 말잘하고 글잘하고 문장 명필이 돼서 만고 문장되어 열다섯살 십오세에 자오도유로 알성과(謁聖科)를 뵈오실제 일편 명지 옆에끼고 원형이정 품에품고 한양경성 올라가서 축당대(春塘臺)에 도루앉아 현제 관(懸題販) 바라보고 과문글제 내걸거던 용연(龍硯)에 먹을 갈아 황모무심필(黃毛無心筆)로 먹을찍어 일필휘지(一筆揮之) 일전하야 선일에 초시하고 후일에 회시맞쳐 축당대 너른뜰에 알성과도장은 대과급제 소년등과 하옵소소 이집의 여자자손이 나거들랑 예행 예절 범도갓추어서 타인가문에 갈지라도 요조숙녀(窈窕淑女)의 근분을 받아 정숙부인 되옵소서 시부모(媿父母)에는 효부되고 남편에 열녀되고 일가에 화복도 되옵소서 이집의 남녀노비 장만할 때 글잘하는 문객이며 말잘하는 청지기 수잘놓는 채인꾼 의사 많다 늙으중 피가 많다 젊은중 앵무같은 계집중 말미같은 남녀노비가 번성하야 이집의 식구가 많아졌으니

외장전답 장만하세 의전앞에 상모찰논 김포통진(金浦通津) 밀다리는 여주이천(驪州利川) 자차는 장만하고 충청도로 내려달아 진개맹개 오야미뜰 선드리별 혼드리별 광문이별 장만하고 경상도로 내려달아 신망뜰 마련하고 경기도로 올려달아 장풍덕에 삼포밭 장만하고 송도개성 삼포밭 마련하고 황해도 내려달아 서산시냇별 장만하고 안엽거성별 장만하고 이천용다리별 장만하고 연안배천(延安白川) 밀밭 장만하고 강녕웅진 참깨밭 장만하고 신계곡산(新溪谷山) 담배밭 장만하고 평안도 성천(成川)의 향초밭 장만하고 함경도 들어서서 회령경성(會寧鏡城) 삼밭 장만하고 산수갑산(山水甲山) 옥수수밭 장만하고 강원도로 달려들어 평강(平康)남면의 갈밭 장만하고 철원(鐵原)의 선창되피별 장만하고 영풍으로 달려들어 신관리별 장만하고 포천으로 팔다리골 장만하고 포천(包川)이라 중전답 북바위로 중전답 장마하고 축당대 왕골논 장만하고 연희궁안에 고추밭 장마하고 풍덕골 호박밭 장만하고 느릿골 양사골 무밭 장만하고 훈련안 배추밭 장만하고 왕감내 세파밭 토란밭 장만하고 왕십리 미나리는 장만하고 복жат골 과실밭 장만하고 서산을 뒤 나무жат 장만하고 외장전답을 다장만하여서 마름들을 낱날이 말렸더니

세월이 여류하야 칠팔월이 다달았구나 구시월이 돌아오더니 대동배가 올라온다 용산 삼개로 휘여들어오는 뱃집은 이집으로 들어오는 뱃집일세 나갈제는 빈바리요 들어올제

는 찬바리라 앞노적이며 뒷노적 구소노적을 안팎에다 가득수복히 싸놓고 앞노적에는 썼이나고 뒷노적에 종이날제 제주한라산 봉덕새가 날아들어 노적틈에다 새끼를치더니 한 날개를 특탁치면 은금보가 쏟아진다 또한 날개 마저 특탁치더니 억만석이 쏟아진다. (이상 성주고사)

#### 八. 세간, 비단 및 노리기치장(治粧)

초년성주는 나주금산 이년성주는 전주완산 상계성주는 대궐성주 중계성주는 각궁각사 성주 말재성주는 차가(此家) 성주 되었구나 아동성주는 초칠세 초년성주는 십칠세 이년성주는 이십칠세 삼년성주는 삼십칠세 사년성주는 사십칠세 오년성주는 오십칠세 육년성주는 육십칠세 칠년성주는 칠십칠세 마지막 성주는 대성주라 초부정에 좌를 떠 들째 부정에 뜰에내려 셋째부정에 개똥발에 유리하던 성주신명 대활례로 놀으소사 울음곡성에 떠난성주 해산부정에 떠난성주 대활례호 놀으소사 동방택세 성주신 남방택세 성주신 서방택세 성주신 북방택세 성주신 중앙택세 성주신 대활례로 놀으소사 앞뜰뒷뜰 노던성주 골방책방 노던성주 다락벽장 노던성주 안방월방 노던성주 내당성주 외당성주 성주망일에 노던성주 화류춘풍 노던성주 강남풍월에 노던성주 대활례호 놀으소사

세간치장 허리로다 머리기장 능화장 가계수리 들마장 왜함능이며 당함농 문갑책상 이불상의 경대와 쌍경대 은장보장 가전입 꿩뒤지는 쌍쌍이벌려 있고 의결장 머리장 찬장 가로간이 들미장 자개함농 반단이 원앙금침 잣베개에 셋별같은 늦요강은 쌍쌍이 벌려있고 일층이층 삼층탁자 사롱장 옷단이 거단이 용두머리 장목비빔접고비 쌍용그림 인물병풍 그림병풍 인물족자 그림족자 왜학이며 당학이라 타구요강 잣떨이 은잎사 담뱃대 서상반죽 십이절죽 안반선반이며 목판이라 교의지상(交椅祭床) 향상향노(香床香爐) 향합(香盒) 네모반이며 육모반 팔모반이라 연잎반이며 준주반 나주옥반 칠반이며 두리반 행자반이며 책상반 용트림반이라 매합지며 전함지 치채절구 함박 쪽박 이남박 물박이며 당숙박 오지칠기 석간죽 질그릇독그릇 향그릇 가마술이며 지복술 국술 밥술 정노귀 룡노귀며 곱돌술번 철생철 쟁개비 다리쇠 석쇠 삼발이 새용 금은동철 함석쇠 흰쇠재물 검은쇠재물 은쇠 늦쇠 시우쇠라 왜사기며 당사기 광주분원기명은 사기반상으로 다들어온다 동래주발은 제갈다리 평양주발은 반사기라 양푼대여 빈병두리 불기유정춧대다기(茶器) 장반 청동화루 무쇠화루 육모화루 봉어화루 늦소래며 밥소래라

비단치장을 허리로다 남경원이며 북경천이라 진단홍 반단홍 지내청 반왜청 거리비단 세비단 해가돋아 일광단 달이돋아 월광단 일광월광 양일광단 바다의 조개단 만첩청산 호랑단 조자룡 상산단 제갈량 와룡단 속초생초 모초단 대접무늬며 접시문 팔양주며 십양 가경주며 통명수 백병수 화주 도리불속 주모본단 목모본단 오복수 양태문갑사 수갑사 연자지 진초록 홍두깨 통비단 대국으로 대단 축국으로 축단 우리나라 세백목 지나라 민비단 왜항나 당항나라 안주항나 양색꼬단불고단 종지문고단 왜징단 도리영초 청초 제병관사 별문관사 무문관사 꼬리관사 석쇠문관사 잣문관사 새발관사 우불꼬불 아롱단 오색비단 채색단 덕천민소 신양주 와단요단 요초단 오능축백 보은단 문주숙주 자기주 응초공단 시양단 아랑공초 물명주까지 다장만하였구나

필목치장을 허리로다 경상도 대동목 전라도 강진(康津)목 충청도 진안(鎭安) 모시 강원도 육진포 행경도 중상포 회령중성 바란베 길주명천(吉州明川) 가는베 이원단천 함홍베 속마베 노삼베 사승포(四升布) 오승포 칠승포 팔승포 구승포 십승포 십일승포 십이

승포 송도 야다리목 고양배 장내기 영개평(楊平加平) 장내기 물어든 재객귀며 제서낭  
속거천리하리라

여인의 노리개 치장을 허리로다 장옷채라 치맛채라 구름같은 탄머리에 연지분과 옥지  
환 은봉채라 금봉채라 탄머리에 하강주 칠보쪽두리용잠 봉잠 국화잠 고리잠 연봉잠 쌍  
과잠 석류잠 새잠 나비잠 말뚝잠 뒤꽂이 귀개 비치개 바늘통 안경 색경 체경 몸거울 도  
트락 서궁황 당기로다

남자 노리개 치장을 허리로다 갓망건 도포채라 정양채 한포단 통대주주홍단사 옥호드  
리 벌매듭 은장두(銀粧刀) 금장두 화류장두 은동곳 금동곳 산호동곳 밀하동곳 수마노동  
곳 호박풍잠 다장만하였구나.

(이하(以下) 경문(經文) 생략(省

略))

—후 기(後 基)—

一. 채록경위(採錄經緯)

본가(本家)는 1967年 7月 10日과 8月 8日의 二次에 걸쳐 녹음(錄音)하였다. 그것을  
글로 채록(採錄)하여 구송자(口誦者)에게 확인(確認)하고 빠진 부분(部分)을 1968年 3月  
31日 보충(補充) 녹음(錄音)하였다. 다시 1968年 4月 5日 전체적(全體的)으로 재확인(再  
確認)하였다.

이(二). 구송자(口誦者) 상황(狀況)

1. 성명(姓名), 권호용(權豪容)(맹격)(男 65)
2. 생년월일(生年月日), 1904(갑진(甲辰))年 11月 12일생(日生)(음(陰))
3. 출생지(出生地), 경기도(京畿道) 포천군(抱川郡) 창수면(창水面) 신흥리(新興里)
4. 현주소(現住所), 경기도(京畿道) 포천군(抱川郡) 소흘면(蘇屹面) 송양리(松陽里)
5. 직업(職業), 침술업(鍼術業)
6. 기타(其他)

상기신흥리(上記新興里)에 출생(出生)하여 철원(鐵原)에 잠시 거주(居住)했다가 파주군  
(坡州郡) 적주면(積州面)에서 20년간(年間) 살다가 6. 25 이후(以後)에는 평택(平澤) 광  
주(廣州) 양주(楊洲)(한산리(閑山里)) 포천(抱川) 용인(龍仁)(2년) 가평(加平)(3년) 양주  
(楊州)(상수리(湘水里)) 등지(等地)로 옮겨 살다가 현거주지(現居主地)로 옮긴 후(後) 7  
년간(年間) 살아오고 있다. 60평생(平生)을 경기도(京畿道)에서 살아온 셈이다.

침술(鍼術)은 40여년전 철원(鐵原) 지장암(地藏庵)에 있던 처사(處事) 한재두라는 사  
람으로부터 배워 모친(母親)의 발병(發病)(족통(足痛))을 고치게 된 것이 시작(始作)이  
다.

본(本) 성주풀이는 유시(幼時)부터 맹격(猛擊)인 권씨(權氏)가 19세 시(時)에 맹격(盲  
覲) 권득빈(경오생(庚午生))으로부터 하루만에 세번 듣고 배웠다고 한다. 제석(祭席)풀  
이를 아림결에, 성주풀이를 저녁때 배웠다고 한다. 제석풀이를 아림결에, 성주풀이를 저  
녁때 배웠다고 한다. 그는 한학(漢學)에 조예(造詣)도 있고 총기(聰氣)가 있으며 인품  
(人品)이 점잖은 맹격이었다. 포천(抱川) 양주(楊洲) 일대(一帶)에서는 명성(名聲)이자자  
하고 신통(神通)한 의사(醫師)로서 그가 민간(民間)에서 받고있는 존숭(尊崇)은 대단(大

端)한 것이었다.

### 三. 구성(構成)

이 노래의 구성(構成)을 편의(便宜上) 아래와 같이 8단락(段落)으로 나누었다.

1. 은허두의 청배격(請拜格)으로 무속격(巫俗格)인 신가(神歌)답게 잡다(雜多)한 신명(身名)이 라열(羅列)된다.

2. 는 재목(材木)의 형성과정(形成過程)이다. 「성주」가 뿌린 솔씨의 성장과정(成長過程)에 전후(前後)해서 전국(全國)의 산천(山川)과 송림(松林)의 경계가 얽어지고 산신고사(山神古事)—벌목(伐木)—떼배뭇기—뱃고사(古事)로 운송준비(運送準備)의 완료(完了)까지이다.

3. 수로(水路)와 육로(陸路)의 운송(運送) 과정(科程)이다. 여기 옛수로(水路)의 지리(地理)가 나와서 양구양천(陽口陽川) 횡성(橫城) 양평(陽平) 여주이치(驪州利川) 광주분원(廣州分院) 송파(松坡) 용산(龍山) 삼개(마포(麻浦))를 거쳐 상륙(上陸)하고 한성(漢城)의 북악육조(北岳六曹)앞에서 일부(一部) 대궐(大闕) 재목(材木)의 하구를 하고 동대문(東大門)으로 해서 여기 포천(抱川)까지 재목(材木)이 운반(運搬)된다.

4. 풍수(風水)로 양택(陽宅)의 터가 가려지고 터가 다져진다. 여기 연장을 만들기 위(爲)한 팔도(八道) 명철(名鐵)의 산지(產地)(15개지명(個地名))가 열거(列舉)되고 목재(木材)를 다르리기 위한 연장의 이름들(25종(種))이 나온다.

5. 는 건축(建築)의 작업과정(作業科程)이다. 다시금 풍수(風水)를 살피고 집채들과 방들을 산정(山亭) 초당(草堂) 내축외축(內厠外厠)에 이르기까지 고루 배치(排置)하고 들보—서까대—평고대(平高臺)—연감(椽監)—산자(撒子)—진사—개와(蓋瓦)—식으로 차례대로 작업과정(作業過程)이 얽어지고 문치장(門治裝)(15개명칭(名稱)) 장판치장(治裝)(6단계(段階))까지 끝난다.

6. 다음은 건물(建物) 안팎의 장식(粧飾)이다. 내부(內部)의 그림풍경(風景)과 그 붙일 장소설명(場所說明)이 개그리고 입춘서(立春書)에 쓸 60여개(餘個)의 문장(文章)과 그 장소(場所)의 설명(說明)이 나온다. 다음에 화초치장(花草治裝)에서 화초(花草)와 초목(草木)의 이름이 무려170여개(餘個)가 나오고 그 심을 장소(場所)를 같이 제시(提示)하고 있으며 가축치장(家畜治裝)에는 가지의 이름이 나온다.

7. 성주고사(城主告祀)이다. 건축공사(建築工事)와 치장(治裝)이 다 끝났으니 집과 집주인(主人) 아들 딸 며느리들에 대(對)한 축원(祝願)이 있고 노비(奴婢)와 전답(田畓)의 치장(治裝)이 나오는데 전답(田畓)은 각도(各道)의 유명(有名)한 평야(平野) 논밭, 산물(産物)들로 특산물(特産物) 이름으로 해서 40여개(餘個)가 나온다.

8. 다음에 세간치장(世間治裝)에서는 가구류(家具類)의 이름으로 110여개(餘個)의 단어(單語)가 나오고, 비단 치장(治裝)에서 비단 이름 60여개(餘個), 필목치장(匹木治裝)에서 필목(匹木) 이름이 20여개(餘個) 노리개 치장(治裝)에서 여자(女子) 노리개 이름 약30, 남자(男子) 노리개 이름이 15개(個) 내외(內外)가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문(經文)이 나오는데 이것은 생략(省略)했다.

1. 2단(段)은 제쳐놓고 3단(段)과 4단(段) 일부 7단(段) 일부(一部)는 옛교통고 산물(産物)을 설명(說明)한 지사분야(地社分野)의 자료(資料)가 되겠고 4단(段)과 5단(段)일부(一部)는 풍수지식(風水知識) 설명(說明)이다. 5단(段)은 우리 고건축(古建築)의 설명(說明)이요, 6단(段)은 민속적(民俗的)인 미술(美術)과 생물분야(生物分野)—그 중에서 서화

(書畫)와 위예(圍藝)의 지식(知識)이 되겠다. 8단(段)의 가구(家具)와 비단 노리개의 명칭(名稱)들은 가사과(家事科)에 속(屬)하는 일이 되겠으나 그대로 공예분야(工藝分野)와 의상분야(衣裳分野)에 또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전체적(全體的)으로 이이 가신(家神) 성주(成主)의 신가(神歌)의 일변형(一變型)이니 고건축(古建築) 전공자(全功者)에게 필요(必要)할 것이요 민속(民俗)의 전공자(專攻者)에게 일독(一讀)의 가치(價値)가 있는 것은 물론(勿論)이겠다.

구송자(口誦者)는 물론(勿論) 계속 내리부르는 것이나 이상(以上)과 같은 각분야(各分野)의 전공자(專攻者)들에게 자료(資料)로서 활용(活用)하는데 편의(便衣)를 도모(圖謀)하고자 단락(段落)을 일부러 명시(明示)하여 놓았다.

요(要)컨대 이 성주풀이가 가지는 가치(價値)는 고전적(古典的)인 어휘집(語彙集)이라는 데에 있겠다. 단순(單純)한 어휘(語彙)만의 라열(羅列)이 아니라 앞뒤에 그 주변사정(周邊事情)이나 기능(機能) 설명(說明)들이 덧붙여 있다. 권(權)장님이 45년전(年前)에 노인(老人)께 배운 것이니 최소한(最小限) 100년 이전(以前)에는 형성(形成)돼 있었을 것으로 봐서 무방(無妨)하겠다. 노래가 이쯤되면 애초부터 유식(有識)한 장님들에 의(依)해서 창작(創作)되고 점차(漸次) 다듬어진 것으로 봐야겠는데 그 시초(始初)는 알 길이 없다. 적어도 보통 민담(民譚)이 신화(神話)들처럼 일정작자(一定作者) 없이 자연발생(自然發生)한 것은 아니며 결과적(結果的)으로는 이조(李朝)의 어휘집(語彙集)라고 그 효용면(效用面)에서 평가(評價)를 내릴밖에 없다. 한학(漢學)에 조와(造訛)있는 경기도(京畿道) 인사(人士)에 의(依)한 구전(口傳)이라 와전와음(訛傳訛音)은 적다. 중간중간(中間中間)에 어구(語句) 주석(註釋)들을 붙여보려 했으나 이상(以上) 전승상황(傳承狀況)으로 보아서 이용(利用)할 각분야(各分野) 전공자(專攻者)들게 맡기기로 했다.

## 옹관장(甕棺葬)?

유해(遺骸)를 토장(土葬)함에 있어 대형(大形)의 토기(土器)를 관(棺)으로 사용(使用)한 것. 아가리가 열린 옹형토기(甕形土器)를 사용(使用)한 것이 많지만 대형(大形)의 토기(土器)를 옹(甕)(독)이라고 불은 속칭(俗稱)에 의해 발생(發生)한 말이다. 토기(土器) 한개를 사용(使用)한 것을 단식옹관(單式甕棺) 또는 단관(單棺)이라 하고 토기(土器) 두개를 사용(使用)한 것을 합구옹관(合口甕棺), 합구관(合口棺)이라 한다. 단관(單棺)에는 뚜껑이 필요(必要)하다고 생각되거나 판석(板石)을 덮는 석개옹외(石蓋甕棺外)는 뚜껑이 남아있지 않다. 목제(木製)의 뚜껑이 사용(使用)되었었는가 일본(日本) 좌가현업산고유적(佐加縣葉山尻遺跡)같은데서는 옹형토기(甕形土器)의 아가리를 밑으로 해가지고 유해(孺孩)의 위에서 덮어 씌운 뚜껑이 없는 단관(單棺)도 발견되어있다. 옹관(甕棺)은 비스듬히 묻는 것이 많지만 이것은 비교적(比較的) 수식(垂飾)에 가까운 것과 수평(水平)에 가까운 것이 있다. 동형동대(同形同大)의 토기(土器) 두개를 사용(使用)한 합구옹관(合口甕棺)의 경우(境遇)에 흔히 있다. 단관(單棺)과 합구옹관(合口甕棺)과의 구별(區別)에 구애(拘碍)치 않고 수직위(垂直位)에 가까운 것은 내부(內部)에 유해(孺孩)를 굴장(屈葬)한 가능성(可能性)이 많다. 수평(水平)에 가까운 합구옹관(合口甕棺)의 경우(境遇) 용적(容積)이 충분히 크면 신전장(伸展葬)도 고려(考慮)된다. 옹관묘(甕棺墓)에

부장품(副葬品)을 넣을 때에는 사자(死者)의 신체(身體)에 가지고 있던 장신구(裝身具)와 소량(小量)의 기물(器物)을 관내(棺內)에 넣기도 하지만 필요(必要)에 따라 관외(棺外)에 둔것도 있다. 미생식시대(彌生式時代)의 옹관(甕棺)에는 내부(內部)에 적색안료(赤色顔料)를 칠하고 뚜껑을 덮은곳에는 진흙으로 발라서 막는것도 있다.

또 묻은 후(後)에는 지표(地表)에 성토(盛土)(흙으로 둥글게 쌓는것)를 하지않고 평장(平葬)을 하는 것이 일반적(一般的)이다. 옹관(甕棺)은 유유아(乳幼兒)의 매장(埋葬)에 사용(使用)되었다.

일본에지현(日本愛知縣) 길호패(吉胡貝)락에서 옹형토기(甕形土器)에서 성인골(成人骨)이 발견(發見)되었지만 이것은 후(後)에 개장(開場)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세골장(洗骨葬)과 화장(火葬)의 경우(境遇)에는 용기(容器)로서 토기(土器)를 사용(使用)한 것은 옹관(甕棺)이라고 하지않고 장골기(藏骨器), 골곤(骨壺)라고 하였다. 한국(韓國)에서는 악랑(樂浪)의 한묘(漢墓)에 소아합구옹관(小兒合口甕棺)을 볼수있으나 이것은 중국(中國)의 계통(系統)이 아닌가본다. 또 경남김해패(慶南金海貝)락에서는 성인용합구옹관(成人用合口甕棺)도 볼수 있다. 中國에서는양조기(仰詔期)에 소아(小兒)를 합구옹관(合口甕棺)에 넣어서 묻는 풍습(風習)이 시작(始作)되고 동주(東周), 진한시대(秦漢詩代)에는 성인(成人)의 매장(埋葬)에도 사용(使用)하게 되었다. 하여간 옹관장(甕棺葬)은 소아옹관(小兒甕棺)에서 발전(發展)한 것인지 불연(不然)이면 우발적(偶發的)인 것인지 앞으로의 연구(研究)를 요(要)할 문제(問題)라고 본다.